

2023년 03월 05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 가정예배순서 ♥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16편 11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 찬 송 / 276(통334)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 성경봉독 / 욥기 19장 1 ~ 20절(구약p.778)

1.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3. 너희가 열 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4.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5.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6.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7.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8.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9. 나의 영광을 거두어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10.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뽕뽕 뽑으시고
11.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 같이 보시는구나
12. 그 군대가 일제히 나아와서 길을 돌우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13.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14.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15.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16.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17.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18.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19.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20.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 뿐이로구나

## ◎ 말씀선포 / 고통 속에서 느끼는 하나님

욥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갈망하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혼란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까닭없이 그의 삶을 무섭도록 파괴하시고 공격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느낌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불편한 감정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 버려두시는 듯한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몰아치는 폭풍 같은 고난 가운데 홀로 오롯이 이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고통 속에서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1.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 욥은 갑자기 찾아온 온갖 고난 속에서 당황하며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는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삶에 시련이 찾아오기 전까지 그의 삶을 평안하고 형통하게 이끄셨던 인자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욥의 간구에는 응답하지 않으시며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외면하시는 듯합니다. 본문 6~10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뿔뿔 뿔으시고.” 외면하실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가 고난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모든 출구를 막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원수처럼 대하신다고 말합니다. 본문 11~15절입니다.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 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아와서 길을 돈우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이처럼 하나님이 왜 자신을 원수같이 대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욥은 더욱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 이렇듯 우리는 삶에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 욥이 느꼈던 영적 어두움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지만 응답은 너무나 더딥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혼의 어두운 긴 터널을 어떻게 지나야 할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그 대표적 예일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찌하여 자신으로부터 멀리 계시며 자기가 고난 당하고 있을 때 숨어 계시냐고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10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런데 이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과 같이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마침내 우리의 탄식은 반드시 찬양으로 변할 것입니다. 길고 긴 고난의 터널을 나와 마침내 그 끝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2. 고난 속에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 하나님은 욥을 돕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친구도 그에게서 등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욥은 홀로 남아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욥은 형제들도 멀리 떠나고 친척들도 자기를 버렸으며 종들에게도 낯선 사람이 되었다고 한탄합니다. 16~20절입니다.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려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 뿐이로구나.” 과거 욥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든든한 가족과 그를 사랑하는 친척, 친구들이 그의 집을 자주 왕래하며 온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그를 둘러싼 모든 관계를 다 깨뜨리고 끊어 놓으신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도 옴을 멀리하고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한 고립감에 빠졌습니다. 참으로 외롭고 소망이 없는 듯합니다. 우리는 옴이 고난 속에서 느낀 고립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해 외로움을 호소합니다. 시편에서 시인은 자신이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으며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같이 느껴진다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102편 6~7절입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고백을 통해 자신의 외로움마저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기도로 바꾸는 온전한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시인은 외로움이란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열심히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때가 곧 올 것이라고 믿고 또 확신했습니다. 시편 102편 12~16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공홀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못 나라가 여호와와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계속해서 17~2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 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와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옴과 시편 저자처럼 깊은 외로움이 느껴진다면 하나님께 그 마음을 그대로 쏟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시며 함께 하실 것입니다.

때때로 성도들에게도 영혼의 어두운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동안 따뜻한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고 고통스러운 상황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로 인생의 광야의 시간입니다. 아무 것도 없는, 찾을 것도, 소망도 없는, 메마른 광야의 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할 때, 오히려 그 광야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소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가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의 외롭고 힘든 그 광야의 시간을 만날 때 그런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하나님 섬기기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부모님의 뜻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자녀 된 우리에게 고난과 외로움을 경험하는 시간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연단 되는 소중한 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내가 여호와와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외로워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의 위로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 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과 가정,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 ◎ 찬 송 / 488(통539)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 ◎ 폐 회 / 주기도문